

독립사무실로 한 단계 도약!

열정 넘치는 서울지원, 이원복 지원장



2017년 첫 KAPEN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지원, 그중에서도 이원복 지원장이다. 지난 한 해 참 바쁘게 보냈고 그 와중에 지원의 숙원 사업인 독립사무실 마련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멀리서도 눈에 띄는 파란 전창 레핑과 큼지막한 가판의 축산분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과거 은행이 있던 곳이라는데 과연 위치도, 외경 인테리어도 초행길이라 할지언정 못 알아볼 수 없겠다 싶다. 오랫동안 절치부심해 마련한 지원 독립사무실은 버리고 별러 온 얘기가 눈부셨다.



“지원 직원들에게 드디어 마련한 소중한 농지입니다. 워낙 바빠 아직 사무실 을 기회가 많진 않았지만, 이제 너는 도축장 냄새나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 안 해도 되는구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있구나 싶은 든든한 내 사무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손직히 너무 오래 없이 살아서인가 쉽게 적응은 안 되더군요.(웃음)”



“
 우리 지원은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뭔가를 찾아 스스로 하는
 창조성이 강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이 독립사무실을 찾는 데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이전에는 지원사무실이 도축장(앞서 서울지원 사무실은 농협부천축산분공판장 내에 있었다.) 한쪽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 업무집중도도 떨어지고 대내외 협력을 하기에 어려웠다.

독립사무실 찾기에 모두가 열을 올렸지만, 밤처럼 금방 구해지진 않았다. 그간 독립사무실 자리를 찾아 서울 강서와 부천지역을 헤매고 다녔지만, 지원 특성상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다 보니 고민에 고민만 이어졌다. 그러다가 지금의 사무실을 만났다. “모두 마음에 들 수야 없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 화두인 역세권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게다가 아주 큰 빌딩의 1층 중간에 딱하니 자리 잡으니 이 큰 빌딩이 다 우리 것 같아 좋습니다.(웃음) 지난 연말에는 사업평가대회도 처음으로 장소 안 빌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회의 한 번 하려 해도 장소 사용을 위해 공문 보내고 사용 신청했어야 했는데, 대단한 발전이죠.”

서울지원은 젊은 직원들이 많고 여성직원 비율도 30%나 되는 만큼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함이 잘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무실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데 화사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와 회의실을 장식한 사진들, 아기자기한 컵 등이 사무실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다.

“2016년은 지원의 젊은 직원들과 어울려서 10년은 젊게 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원은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뭔가를 찾아 스스로 하는 창조성이 강합니다. 덕분에 지난 1년만 봐도 축산물 실용화 연구과제 최우수상,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축산분등급정보 분석 경진대회 1위, 축산물이력제 개선 및 발전 방안 경진대회 은상 등 각종 대회에서 다수 수상했지요. 제가 압력을 넣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직원들 덕분에 저를 비롯한 팀장과 출장소장들도 같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이원복 지원장은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해 힘들었던 직원이 있다면 미안하다. 그것도 내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을 더했다. 안 그래도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 인천에 강원 철원까지 포함하는 광역지원인 데다가 수도권 축산물 시장을 품고 있기에 등급판정이라는 기본 사업에 이력사업, 유통조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다양한 부가사업에 참여하고, 젊은 직원들은 WHY스터디를 운영하며 책까지 만들 만큼 분주하게 보낸 데 대한 우려다.

물론 그렇다고 ‘2017년은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계획은 없다. 어쩌면 직원들과 지원장, 담당 등이 맞춤형 한 세트인지. 인터뷰 후 함께 자리했던 승종원 평가팀장이나 허운정 차장도 이원복 지원장과 더불어 2019년 개장 예정인 부천 축산물 복합단지나 독립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확대해 나갈 대외 협력 업무 등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눈을 빛냈다. 당장 적극적으로 대내외 협력 업무를 펼치며 독립사무실이 축산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축산 관련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꾸리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쏟아냈다.

여기에 이원복 지원장은 “서울시 급식의 60%를 맡은 서울시 친환경영유통센터 납품 가공장 지정 과정에 우리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무엇보다 아이들 급식이 되는 만큼
직원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 급식이 되는 만큼 직원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이 때문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직원들을 축산 전문가로 만들고 싶다.”고 2017년 바람을 밝혔다. 현장에서 축산 전문가인 축평원의 직원으로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나아가 축산물 복합단지 개장 후에도 마치 자문위원처럼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축평원 직원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리고 직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우리 자료 있잖아요. 등급판정 자료나 이력제 자료. 그리고 다반 서울지원이 아니어도 전국에 300여 명의 열정 가득한 우수한 인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이의 의욕을 자극하는 멋진 말들에 감탄에 감격했지만, 2017년 첫 생일이 되기도 전에 문턱 닳게 생긴 독립사무실에는 미리 애도를 표해야 할 것 같다. ☹